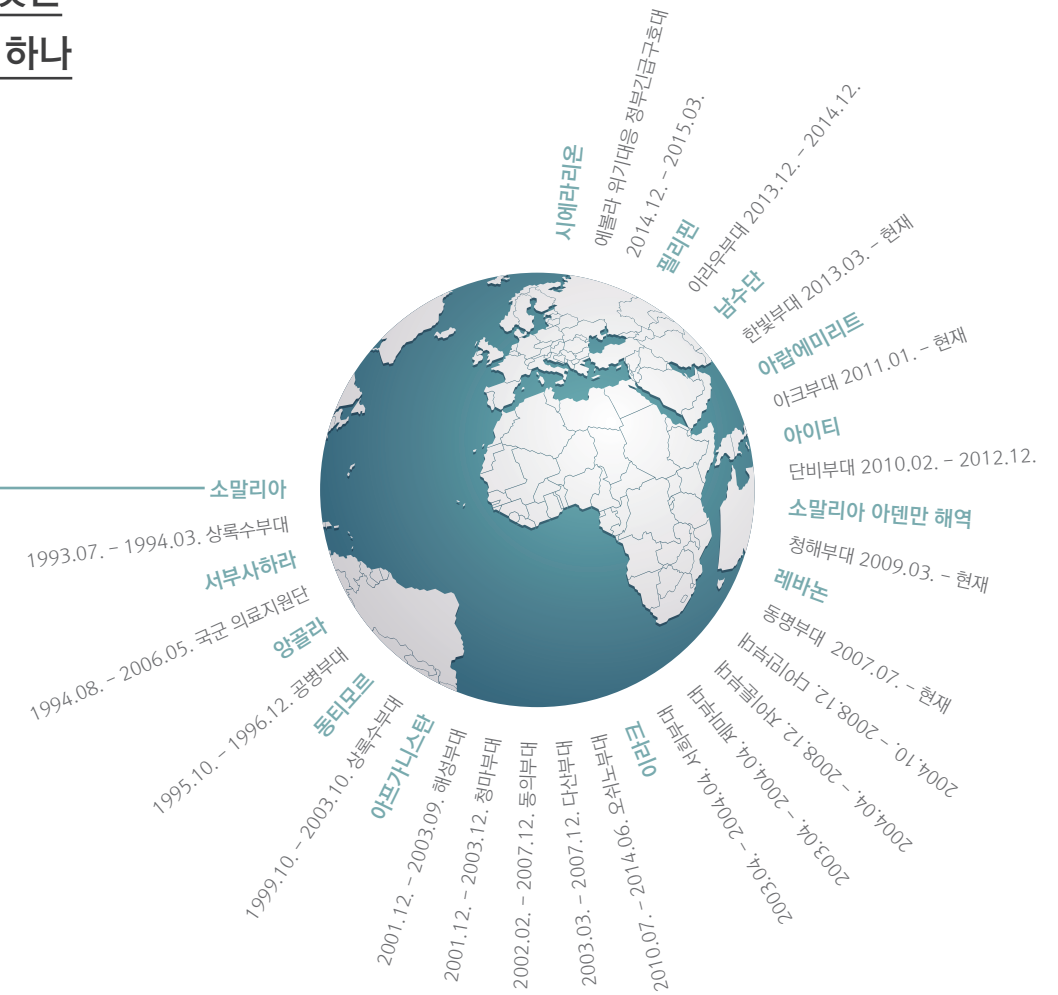


세상을 잇는
작은 점 하나

세상을 잇는
작은 점 하나





우리 국군장병
1,109명은
12개국에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나, 점을 찍다

- 06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 08 우리 군의 해외파병 발자취

둘, 점을 잇다

- 14 우리 군의 해외 파병 현황
2018년 파병연장 추진부대의
성과와 파병연장 필요성
- 16 -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
- 20 -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
- 24 - 레바논 동명부대
- 26 - 남수단 한빛부대
- 28 - 해외파병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

셋, 하나가 되다

- 32 법 제정의 효과
해외파병법 제정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
- 34 해외파병법 제정 추진,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
법률안 주요 내용

점을 찍다



60여 년 전,
대한민국에 작은 점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폐허가 된 땅에 찍힌 작은 점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시작점이 되었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평화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기억을 간직한 채,
대한민국은 오늘도 세상에 점을 찍습니다.

하나라는 공통점을
나눔의 중점을
영원히 변치 않을 평화의 시작점을

우리나라를 향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해외파병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60여 년 전, 6·25전쟁으로 우리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우리는 조국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6·25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던 우리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스포츠·문화강국, G20 정상회의 개최국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이러한 눈부신 성장을 가능케 한 국제 사회의 도움을 잊지 않고 이제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6·25전쟁 지원국 현황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은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를 개최하고 한국군사원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60개국의 회원국들이 우리를 지원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16개국이 병력 지원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 6개국이 의료 지원을, 스위스, 오스트리아, 칠레 등 38개국이 물자 및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 제2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한국군사원조' 권고 결의안 통과 (1950.6.27.)



▲ 부산항에서 미군 선박의 보급품 하역 장면

우리도 도움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손을 건넸습니다.

6·25전쟁 참전국인 필리핀이 태풍 피해로 신음하고 있을 때 적극적인 복구활동으로 희망을 전하였고 알카에다와 탈레반의 무차별적 테러로 인해 아프간의 재건과 안정화가 절실할 때 모범적인 재건활동으로 아프간에 꿈을 심었습니다. 또한 가장 위험한 해역으로 꼽히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평화를 지켜 우리나라 선박뿐만 아니라 타국 선박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하고 신생독립국인 남수단에 재건과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라리온에 에볼라 위기대응 민·군 합동 정부긴급구호대를 파견하여 세계보건에 이바지하였습니다.

파병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해외파병활동의 든든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면 대한민국 군사외교관으로서 우리의 아들과 딸이 더욱 열정적으로 분쟁과 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대한민국을 심을 것입니다. 주변국과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더 큰 대한민국을 힘차게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28개국 희망의 바람을 일으켜 왔습니다.

해외파병 발자취 >

1993

1993
1999

2000
2005

2007
2010

2011
2014

2018

해외파병 활동 >

우리는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1993년 소말리아에 최초로 유엔 평화유지군 상륙수부대를 파견했습니다. 그 후 서부사하라 국군 의료지원단, 앙골라 공병부대, 동티모르 상륙수 부대, 아이티 단비부대를 파견했으며, 현재는 레바논 동명 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가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국적군 평화활동으로는 아프가니스탄에 해상·청마·동의·다산·오쉬노부대, 이라크에 서희·제마·자이툰·다이만부대를 파견했으며, 현재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청해부대가 파견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를 위해 시에라리온에 정부긴급구호대를, 필리핀의 재해복구 지원활동을 위해 국방교류협력활동으로 아라우부대를 파견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아크부대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1993.07.
소말리아
상륙수부대

1994.08.
서부사하라
국군 의료지원단

1995.10.
앙골라
공병부대

1999.10.
동티모르
상륙수부대

2001.12.
아프가니스탄
해상·청마부대

2002.02.
아프가니스탄
동의부대

2003.04.
이라크
서희·제마부대

2003.03.
아프가니스탄
다산부대

2004.04.
이라크
자이툰부대

2004.10.
이라크
다이만부대

2007.07.
레바논
동명부대

2009.03.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청해부대

2010.07.
아프가니스탄
오쉬노부대

2010.02.
아이티
단비부대

2011.01.
UAE
아크부대

2013.03.
남수단
한빛부대

2013.12.
필리핀
아라우부대

2013.03.
남수단
한빛부대

2014.12.
시에라리온
에볼라 위기대응
정부긴급구호대

다국적군 평화활동

- + 아프가니스탄 해상·청마부대·동의·다산·오쉬노부대
- + 이라크 서희·제마부대·자이툰·다이만부대
- +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청해부대

정부긴급 구호활동

- + 에볼라 위기대응 정부긴급구호대

국방교류협력활동

- + UAE 아크부대
- + 필리핀 아라우부대

유엔 평화유지활동

- + 소말리아 상륙수부대
- + 서부사하라 국군 의료지원단
- + 앙골라 공병부대
- + 동티모르 상륙수부대
- + 레바논 동명부대
- + 아이티 단비부대
- + 남수단 한빛부대

우리군의 해외파병 누적 현황

28개국 52,718명
(2018년 6월 기준)



세계 곳곳에 평화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해외파병 지역 >

① 소말리아
상륙수부대
1993.07. - 1994.03.

② 서부사하라
국군 의료지원단
1994.08. - 2006.05.

1993

③ 앙골라
공병부대
1995.10. - 1996.12.

④ 동티모르
상륙수부대
1999.10. - 2003.10.

1995

⑤ 아프가니스탄
해상부대 2001.12. - 2003.09.
청마부대 2001.12. - 2003.12.
동의부대 2002.02. - 2007.12.
다산부대 2003.03. - 2007.12.
오쉬노부대 2010.07. - 2014.06.

2001

⑥ 이라크
서희부대 2003.04. - 2004.04.
제마부대 2003.04. - 2004.04.
자이툰부대 2004.04. - 2008.12.
다이만부대 2004.10. - 2008.12.

2003

⑦ 레바논
동명부대 2007.07. - 현재
UN 안보리 결의안 제425호(1978. 3. 19.)
제426호(1978. 3. 19.)
제1701호(2006. 8. 11.)

2007

⑧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청해부대 2009.03. - 현재
UN 안보리 결의안 제1373호(2001. 9. 28.)
제1838호(2008. 10. 7.)
제1846호(2008. 12. 2.)
제1851호(2008. 12. 16.)

2009

⑨ 아이티
단비부대 2010.02. - 2012.12.
⑩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2011.01. - 현재

2010

⑪ 남수단
한빛부대 2013.03. - 현재
UN 안보리 결의안 제1996호(2011. 7. 8.)

2013

⑫ 필리핀
아라우부대 2013.12. - 2014.12.
⑬ 시에라리온
에볼라 위기대응
정부긴급구호대 2014.12. - 2015.03.

점을 잇다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평화의 시작점과
세계 각국의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군의 한결같은 마음이 이어져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 국가와 국가를 이어
세계 평화를 위한 단단한 뿌리가 되었듯이

오늘도 우리 군은
수많은 점, 그 점을 굳게 잇고, 단단하게 간직해
변치 않는 올곧음으로 평화의 징검다리를 놓아갑니다.



더불어 사는 세계 속의 한국군

우리 국군장병 1,109명이 12개국에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교류협력활동을 하고 있으며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유엔 임무단에 소속, 수행하는 평화유지 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승인된 다국적군에 소속 또는 협조 하에, 수행하는 평화유지활동
국방교류협력활동	당해국가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 재 난구호 등의 활동
개인파병	유엔 임무단(다국적군 사령부) 정전감시 요원, 참모 및 협조 장교 등 임무 수행

총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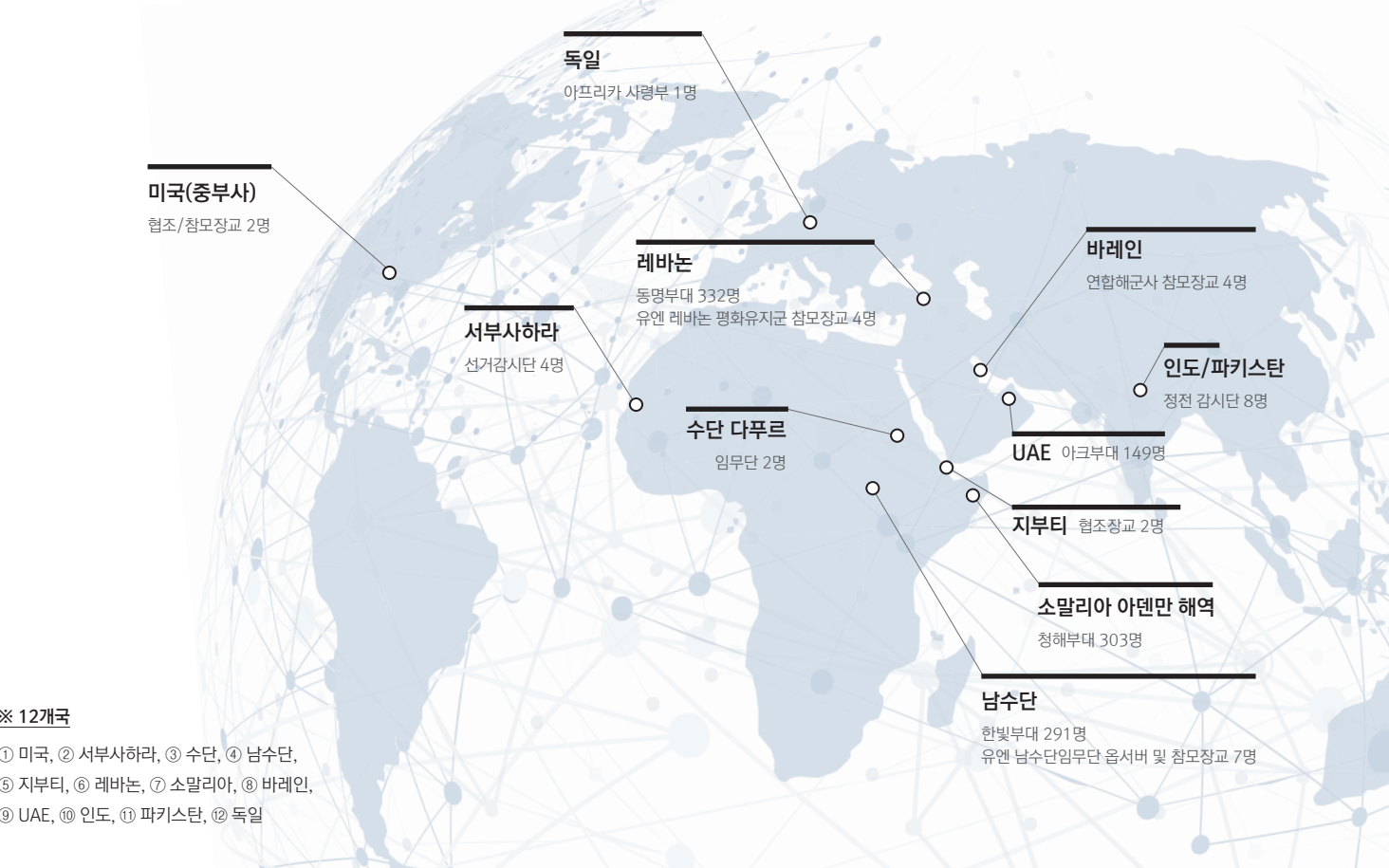
개국

1,109

명

2018. 6. 30. 기준

[해외파병 지역]



[해외파병 현황]

부대파병

4 개 부대 1,075 명



다국적군 303명(1개국)
UN PKO 623명(2개국)
국방교류협력 149명(1개국)

개인파병

10 개국 34 명



다국적군 9명(4개국)
UN PKO 25명(6개국)

다국적군

5 개국 312 명

부대 파병 303명

청해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개인 파병 9명

연합해군사 참모장교(4명)	바레인
협조장교 (2명)	지부티
협조단/참모(2명)	미국(중부사)
	플로리다 탬파
협조장교(1명)	독일(아프리카 사령부)
	슈투트가르트

UN PKO

6 개국 648 명

부대 파병 623명

동명부대(332명)	레바논 티르
한빛부대(291명)	남수단 보르

개인 파병 25명

정전감시단(8명)	인도·파키스탄 카슈미르
임무단(7명)	남수단 주바
임무단(2명)	수단 다푸르
선거감시단(4명)	서부사하라 라운
평화유지군 참모(4명)	레바논 나쿠라

국방교류협력

1 개국 149 명

부대 파병 149명

아크부대 아랍에미리트(UAE)

청해부대

다
국
적
군
평
화
활
동

우리나라 최초 파병 전투함으로서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국제권고통항로(IRTCT⁺)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략수송로를 보호하고
국가 위상을 제고합니다.

소 말 리 아 아 덴 만 해 역

파병지역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최초파병 2009년 3월 13일
편성규모 구축함 1척, 병력 320명 이내
부대임무 우리선박의 안전항해 지원
유사시 우리국민 보호
연합해군사 및 EU의 해양안보작전 참여

소말리아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내전과 무정부 상태 등을 겪으며 정치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틈을 타 1990년대 초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는 해적들이 활동하기 시작했고, 2008년부터는 해적의 수와 선박 납치 사건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에 유엔은 소말리아 해적을 퇴치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안 제1838호를 결의하고, 회원국에게 함정과 항공기 등의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항해 지원을 위해 2009년 3월 13일 청해부대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했습니다.

[성과]

2009년 3월 ~ 2018년 6월

■ 대한민국 ■ 타국

497 척

⁺선박호송

1,803 척

14,948 척

⁺안전항해지원

2,918 척

21 회 31 척

해적퇴치



399 회 869 일

⁺해양안보작전



⁺선박호송 작전 : 안전호송을 요청한 선박에 대해 1~3마일내로 근접, 호송 지원
⁺안전항해 지원 : 연합해군사 작전구역 내 선박과 통화,선박안전 유무 확인 및 조치
⁺해양안보작전 : 연합해군사 전술통제하 지정 구역 내 해적활동 감시 및 조치
⁺IRTCT (Internationally Recommended Transit Corridor, 900여 km)

[주요활동]

+ EU 대해적작전 참여



+ 참가국과의 교류협력



+ 연합해군사 CMF(Combined Maritime Forces)
아덴만과 소말리아 동부 해상 일대에서 대테러
대해적·해양안보작전을 수행하는 다국적군부대

+ CTF-151(Combined Task Force-151)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역에서 대해적작전을 수행
하는 연합해군사 예하부대

우리 선박 및 타국 선박의 안전항해 지원

청해부대는 지금까지 21회에 걸쳐 31척의 해적을 성공적으로 퇴치했습니다. 또한 우리 선박 가운데 해적에 취약한 선박 497척(타국선박 1803척)을 호송하고, 14,948척(타국선박 2,918척)과 정기 교신을 주고 받으며 해적의 동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항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합해군사 해양안보작전 성공적 수행

청해부대는 지금까지 399회에 걸쳐 연합해군사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파병 이후 4회(10년, 12년, 14년, 16년)에 걸쳐 연합해군사+의 CTF-151+ 지휘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해적작전 참가국과의 교류 협력

지금까지 스페인, 이탈리아 등 EU 대해적작전 참가국과 연합작전을 실시하고, 한·미·영·일 연합훈련 및 교류 활동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사시 서로 도울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 구출 및 보호

청해부대는 2011년 1월 ‘아덴만 여명작전’을 실시하여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 주얼리호 선원을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무사히 구출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작전수행 능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2012년 12월에는 피랍된 제미니호 선원 4명을 성공적으로 구출했으며 2014년 리비아, 2015년 예멘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리비아와 예멘에 있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을 인접 국가로 안전하게 철수시켰습니다. 또한, 2018년 4월에는 가나해역에서 해적에게 피랍된 후 석방된 우리국민(3명)을 가나 테마항까지 안전하게 호송하였습니다.

[파병연장의 필요성]

우리나라 총 해운물동량의 30%가 통과하는 주요 전략수송로 보호

아덴만 해역은 원유, LNG 등 국가 전략물자의 주요 해상수송로로 우리 국적 선박이 연중 약 400여 회 통항하고 있습니다. 아덴만 해역을 통과하지 않고 희망봉 우회 시 약 3,550해리(6,570km) 항해 거리 추가로 70억 원의 항해비용이 추가 발생합니다(1만 톤급 컨테이너선 기준).

원양산업협회, 선주협회 등은 청해부대가 해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효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외교부 및 해수부는 전략수송로를 안전 하게 확보하기 위해 파병연장을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

타국 연합전력과의 통신훈련 및 군수지원 훈련, 기동 훈련 등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 시키고, 유사시 우리 국민보호를 위한 연합작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CTF-151 지휘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연합전력 지휘역량을 축적하고 있다.

국가위상 제고

연합해군사령관은 해적활동 재개 등 해양불안정성 증가로 전문성을 갖춘 청해부대 역할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청해부대는 태국, 베트남 등 기항지 군사교류협력 활동, 국제관함식 참가, 방산전시 회 참가 등을 통해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駐오만, 駐바레인 한국대사도 “청해부대의 성공적인 대해적작전은 해적 퇴치는 물론 주재국과의 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파 병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청해부대는 '14년 리비아, '15년 예멘 사태 시 우리 국민 철수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중동지역 내 급변사태 발생 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기동성을 갖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예멘 사태 시에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함상에(2015. 4. 3. ~ 7. 17. 왕건함) 한국 대사관 임시 사무소를 개설하여 체류 국민과의 연락 유지 및 우리 국민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가나해역에서 해적에게 피랍된 후 석방된 우리국민(3명)을 나이지리아에서 가나 까지 안전하게 호송하였으며, 이는 아덴만 해역 넘어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수행한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이처럼 중동정세 불안과 최근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으로 우리국민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유사시 청해 부대를 활용한 우리 국민 보호 임무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 가나해역 피랍된 우리국민 호송



희망봉 우회 시
6,000km 항해거리 추가



+ 청해부대원들이 납치된 선원을 구하기 위해 아덴만 여명작전 전개



+ 예멘 사태시 우리 국민 6명, 외국인 6명을 예멘에서 오만 살라라로 철수

아덴만 여명작전

아덴만 여명작전은 2011년 1월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대한민국의 삼호 주얼리호(1만 톤급)를 소말리아 인근의 아덴만 해상에서 구출한 작전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우리 군의 우수성을 알린 성과입니다.

2011. 1. 15.

삼호 주얼리호 피랍 상황 접수
청해부대 피랍지역으로 출항

2011. 1. 17.

피랍선박 감시 및
심리전 수행

2011. 1. 21.

선장 및 선원 구출 성공,
해적 8명 사살, 5명 생포

리비아·예멘 재외국민 철수작전

청해부대의 잇따른 우리 국민 구출작전은 한국군의 역사를 새로 쓴 쾌거이며, 우리 국민의 가슴 속에 우리 군에 대한 자부심을 깊게 심어주었습니다.

2011. 3. 3. ~ 16.

우리 국민 37명, 리비아에서 몰타,
그리스로 철수

2014. 8. 16. ~ 17.

우리 국민 18명, 외국인 86명
리비아에서 몰타로 철수

2015. 4. 9. ~ 10.

우리 국민 6명, 외국인 6명
예멘에서 오만 살라라로 철수

아크부대

국방교류협력활동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국방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파병지역 UAE 아부다비주
최초파병 2011년 1월 11일
편성규모 150명 이내
부대임무 UAE군 특수전부대 교육훈련 지원
UAE군 특수전부대와 연합훈련·연습 실시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UAE는 우리 군의 교육훈련 체계 및 선진화된 국방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UAE는 우리 군을 자국군의 롤 모델로 벤치마킹하여 교육훈련의 수준을 높이고 국방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2010년 8월 우리 군의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동의 허브인 UAE와 국방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중동지역 평화와 안정유지는 물론 국익증진에도 기여하며,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1월 11일 아크부대를 UAE로 파견하였습니다.

[아크부대(특전사 150명, 8개월)의 국내와 UAE에서의 훈련량·비용 비교]

■ UAE ■ 국내 단위 : 회/일(훈련량) / 원(비용)

아랍에미리트	강하훈련, 패스트로프	시뮬레이션 훈련	사격훈련	대테러 훈련	차량·유류지원, 문화탐방 등	총계
	76 회 8억 6,500만 원	60 회 6,000만 원	116 회 6,700만 원	61 일 2억 4,500만 원	240 일 4억 494만 원	240 일 최대 116회 16억 4,194만 원
	4 회 5,000만 원	미보유 훈련장	17 회 900만 원	40 일 1억 6,000만 원	소요없음	30 일 최대 8회 2억 1,900만 원

[주요활동]

UAE군 특수전 수행능력 향상을 통해 UAE군 정예화에 실질적으로 기여

아크부대는 대테러사격술, 침투기술, 등 특수전부대 요구사항과 부합되는 교육 지원을 통해 UAE군 특수전부대의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UAE군도 한국군의 정신력과 의지를 높게 평가하고, 아크부대를 본받아 자발적으로 단체뒀겅겅, 사막행군, 강화된 체력검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UAE군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여 UAE군 선진화와 전투력 향상에 기여

훈련분야별로 ‘계획수립-준비-실시-사후검토’ 시스템을 적용한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UAE군이 스스로 훈련을 계획, 실시,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훈련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크부대는 국방협력의 중점을 ‘UAE군의 기본과제 반복훈련’에서 ‘종합전술훈련’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UAE 국방부는 ‘아크부대는 상시 전투준비태세가 완비된 부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UAE 특수작전사령부는 “아크부대는 UAE에 주둔하고 있는 타국가와 비교해서 교육훈련 등 작전분야 이외에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행동하여 UAE군이 본받을만한 최고의 부대”라고 언급함. (2018년 5월)

우리 특수전부대의 특수작전 수행능력 향상

국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고온·건조한 사막훈련과 UAE군의 첨단 시설·장비를 활용한 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중동지역 연합특수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자연적·사회적 조건으로 제한되는 훈련을 충분히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공·야간강하 훈련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6~7년 걸리는 훈련량을 6개월 만에 실시할 수 있고 무상으로 제공되는 UAE군의 첨단 시설·장비를 이용함으로써 국내훈련 대비 예산절감 효과도 얻고 있습니다.

+ 특수전팀



기본·전투모형훈련, 차량기동훈련, 전술훈련, 종합훈련

+ 대테러팀



특공무술, 종합훈련, 유형별 작전 (차량·항공기·건물·선박)

+ 고공강하팀



기본전술 및 무장강하, 전술강하, 종합훈련

+ 해상특전팀



수중·해상침투, 선박장악훈련, 종합훈련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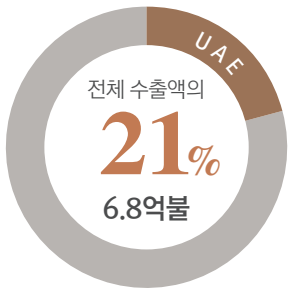
파병을 계기로 한-UAE 간 국방교류협력 확대

한국과 UAE는 아크부대 파병을 계기로 국방 전 분야에 걸쳐 활발한 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전훈련을 포함한 육·해·공군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간 군사적 신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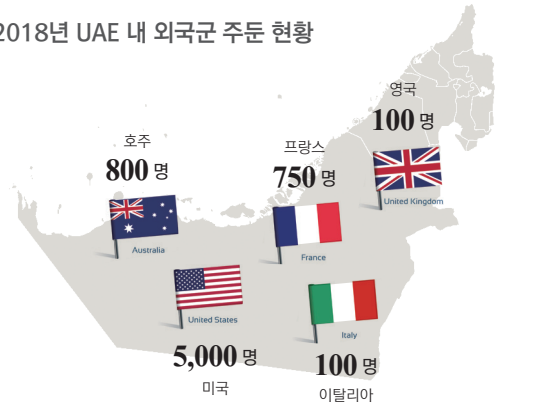
○ 한국과 UAE의 국방교류협력 내용

- + 한-UAE군 연합훈련 (39회)
- + 각 군의 교육과정에 UAE군 수탁교육(41명) 및 한국군 위탁교육(25명)
- + 방산수출 협력 등 중동지역 국방외교 허브 구축(*'17년 방산수출액 : 6.8억불(전체수출액의 21%))
- + 의료협력을 통해 UAE군·가족 환자의 국내 민간병원 진료(월 평균 약 31명 / 연 372여 명)
- + 주요 서방 선진국가들도 UAE에 지속 주둔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방협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 2017년 우리나라 방산수출 규모



○ 2018년 UAE 내 외국인 주둔 현황



새로운 주둔지 이전을 통해 장병 생활 여건 개선 및 양국 국방교류협력 심화 토대 마련

아크부대는 아부다비주 알아인 지역에서 스웨이한 지역으로 2016년 9월에 부대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새로운 주둔지에는 현대화된 생활관, 체육관 등 각종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부대이전에 필요한 비용 300억 원 전액을 UAE측에서 부담하였습니다. UAE군은 외국군 중 유일하게 아크부대에게만 전용시설을 갖춘 주둔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아크부대의 성과와 기여에 대해 각별한 지원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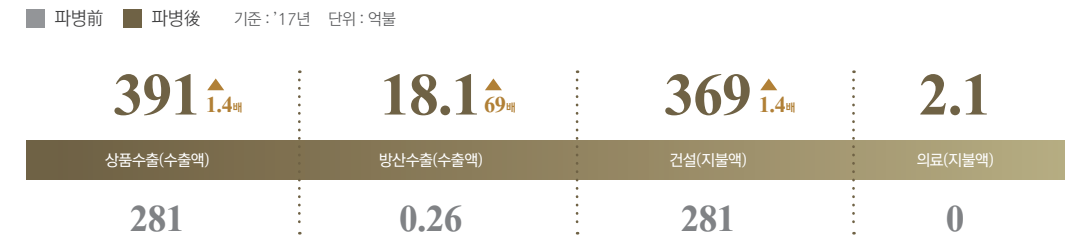
○ 우리 대통령 아크부대 방문시(*'18년 3월)

아크부대는 대한민국 군의 자량이자 한국과 UAE와의 협력의 상징이며, 아크부대로 인해 양국은 특별 전략전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형제국가로 발전하였음.

[파병연장의 필요성]

아크부대 주둔은 한 UAE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 및 방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 협력에 기여

○ 한-UAE 경제 협력 규모(파병前·後 7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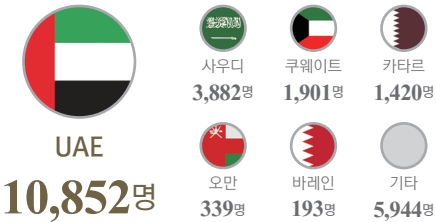
○ 고부가가치 창출이 용이한 분야로 협력 확대

+ 과학기술분야	+ 농업분야
• 과학기술·ICT 협력 MOU 체결(*'18. 3.) • UAE 우주청과 우주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간 협력채널 구성 • 한국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칼리파과기대간 공동 R&D센터 설립 * 우주, 소형무인체, 바이오 헬스 등 미래 성장 산업분야 공동 연구	• 사막형 온실재배, 스마트팜 등 농업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추진 중 * UAE측 관심분야 : 온실시공기술, 농업용수절약기술 등
+ 에너지분야	+ 기타
• 제 3국 원전사업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 추진 • UAE 초대형 정유플랜트 수주(3조 4천억원, '18.2.) • 재생에너지·에너지신산업 협력 MOU 체결 (*'18.3.) • 재생에너지 투자협력 MOU 체결 (*'18.3.) • 청정 연료 분야 연구협력 합의	• 반도체분야 인력 및 기업협력 MOU체결 (*'18. 3.) • 해수 담수화 및 항공 협력 확대 추진 • 특허 행정 전 분야에 대한 UAE의 자립화된 체계 완비를 위한 협력 추진 • 산업·에너지 분야 상시 파트너십 데스크 설치, 공동펀드 운영 및 협력사업 발굴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중동지역에는 24,000여 명의 우리 국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UAE 관 계가 발전함에 따라 중동지역 우리 국민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시리아, 예멘 사태 등 급변하는 중동지역 정세를 고려할 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도 파병연장은 꼭 필요합니다.

○ 2017년 중동지역 국가별 재외국민 수



UAE정부, 특수전부대 능력 향상 및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아크부대 파견 희망

UAE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성과에 더하여 UAE군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파병연장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 UAE 왕세제, 국방협력을 포함한 한국의 경험과 기술전수 방안 등을 확대하기를 희망(*'18.3월)

동명부대

유엔 평화유지 활동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
정전 감시 활동을 통해
중동평화에 이바지합니다

파병지역 레바논 남부 티르 지역
최초파병 2007년 7월 19일
편성규모 350명 이내
부대임무 작전지역에 대한 경찰·감시
레바논군 협조 및 지원
인도주의적 활동 및 친한화 활동

1978년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레바논에 평화유지군을 창설하고 레바논과 이스라엘간의 정전 감시 임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 레바논 남부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충돌로 정세가 악화되자, 유엔은 평화유지군 규모를 2,000명에서 1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의하고 회원국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350명 규모로 동명부대를 레바논 남부 지역(티르)에 파견하여 2007년 7월부터 현재까지 11년 동안 레바논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과]

■ 민군작전 (2018년 6월 기준)

현지 주민 의료지원	가축 진료	주민 숙원 사업 (공공시설, 학교시설, 하수시설 등)	레바논군 지원	컴퓨터·한글·태권도· 재봉교실 운영
105,703 회	33,888 두	394 건	91 건	5개 마을



■ 작전활동 (2018년 6월 기준)

고정감시	도보정찰	기동정찰	EOD정찰	레바논군 연합 고정감시	레바논군 연합 도보정찰	레바논군 연합 기동정찰
35,550 회	3,611 회	37,200 회	4,080 회	3,554 회	395 회	3,292 회

[주요활동]



▲ 기동경찰



▲ LIU국제대학 디자인데이



▲ 친한화활동

경찰·감시 작전을 통한 불법무기 및 무장세력 유입 차단

동명부대의 주임무는 경찰·감시를 통해서 레바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무기 및 무장세력이 레바논 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에 주요 고속도로 진입지점 2개소에서 테러의심차량을 식별하고 보고하는 등 불법무기 및 무장세력의 유입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불법무기 은닉 의심지역에서는 레바논 군과 연합하여 월 2~4회 도보 및 기동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이후 책임지역 내 테러행위가 전무한 등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 유엔과 레바논 정부는 우리 동명부대가 중요한 작전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의 필요에 기반한 맞춤형 민군작전

동명부대는 작전환경 조성과 현지 주민들의 안정을 위해 인도적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순회 진료를 통해 10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했고, 가축에 대한 수의진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K-Road(3km) 건설, 하수도 사업, 학교 시설 개선, 도서관(K-library) 설치 등의 지원 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컴퓨터·재봉교실을 운영하여 현지인들의 직업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태권도·한글 교실을 통해 문화외교관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자발적으로 동명부대 서포터즈를 결성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레바논군의 역량 강화 지원 및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참여국과의 활발한 교류활동

레바논군 시설(지휘통제실·통신망 설치 등)을 개선하고 물자 및 장비를 제공하는 등 레바논군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UNIFIL 내 연합훈련(응급환자 후송훈련, 현장 채증훈련, 사격훈련 등)을 통해 우리군의 역량을 높이고 있으며, UNIFIL 참여국들과의 활발하게 교류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빛부대

유엔 평화유지 활동

신생 독립국 남수단에
재건과 희망의 빛이 됩니다

남 수 단

파병지역 남수단 보르 지역
최초파병 2013년 3월 31일
편성규모 300명 이내
부대임무 남수단(종글레이주) 재건 지원
인도주의적 활동 및 친한화 활동

남수단은 1956년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이후 50여년간 내전으로 고통받다, 2011년 7월 수단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내전으로 국토는 황폐화되고 국민들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습니다. 유엔은 신생 독립국인 남수단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재건을 돕기 위해 회원국에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모범국가로서 국제평화와 동아프리카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2013년 3월 300여명 규모의 한 빛부대를 남수단 보르 지역에 파견했습니다.

[성과]



친한화 활동

- UNMISS + 태권도 및 한국어 교실
- 문화교류행사 : 태권도 시범, 사물놀이, 모듬북, 전통무예 공연 등
- 한빛커뮤니티 운영
- 존가람대학교 한빛장학재단 운영

+UNMISS : 유엔 남수단 임무단



민군작전

- 사회개발 지원**
- 한빛직업학교 운영 : 7개 과정(농업, 목공, 전기, 용접, 건축, 제빵, 영어)
 - 방한연수
- 인도적 지원**
- 대민의료지원 : 환자진료, 방역활동, 수의진료 등
 - 물자 및 장비 공여



재건지원작전

- 사회 기반시설 개선**
- 보르~망겔라 도로보수 : 125Km
 - 보르~피보르 도로보수 : 197Km
 - 보르공항 유지보수 : 터미널, 헬기 정비고, 주기장 신설 등
- 주민숙원사업**
- 난민보호소 신설 : 500m x 500m
 - 백나일강 차수벽 설치 : 17Km
 - 보르 시내 도로보수 및 배수로 구축
 - 종글레이주 종합쓰레기처리장 신설 : 2개소
 - 르왓딜 초등학교 및 존가람대학교 평생교육원 신축
- UNMISS 보르기지 작전로 및 방호시설 보수, 숙소·사무실 설치**
- UNMISS 피보르기지 공병지원 : 방호벽 설치, 작전로 및 배수로 보수, 공항 활주로 보수 등

[주요활동]



▲ 보르 ~ 망겔라 도로 보수 공사



▲ 의료지원활동



▲ 한빛농장

남수단 재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현지 정부로부터 높은 평가

한빛부대는 유엔으로부터 부여된 공항확장·보수, 도로 공사 등 남수단 재건지원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수단 수도인 주바(Juba)와 보르(Bor)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였으며, 매년 우기 때 마다 범람하던 백나일강에 총연장 17Km에 이르는 차수벽을 건설하여 20만 보르시민에게 안정적인 생활터전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한빛부대의 훌륭한 임무수행에 감동받은 남수단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한빛부대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으며,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로부터 '유엔군 최고의 모범부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민군작전으로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

한빛부대는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재건지원 작전 외에 의료혜택이 전무한 현지주민들을 위한 의료지원, 초등학교 및 고아원 시설 보수 등 다양한 민군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빛직업학교는 전문기술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남수단에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 스스로 일어 설 수 있도록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한빛부대는 종글레이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으로부터 '남수단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부대'로 평가 받으며 '신이 내린 축복'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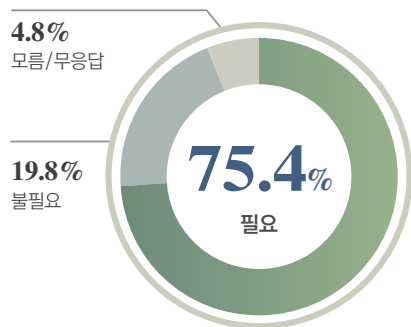
친한화 활동

한빛부대는 대한민국 국가대표군이자 군사외교관이라는 자긍심으로 한류전도사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유엔직원과 인접부대 군인, NGO단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여 사물놀이, 전통무예 시범 등 대한민국의 우수한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해외파병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

● 필요 ● 불필요 ● 모름·무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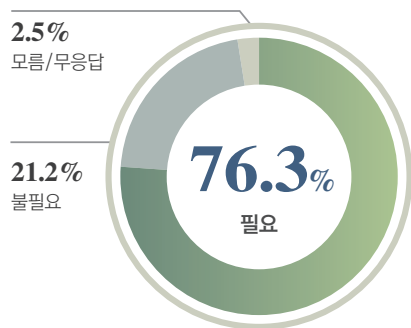
우리 군의 해외파병
활동에 대한 동의



우리나라 성인의 75.4%는
‘우리 군의 해외파병 활동’에 대해 찬성

2017년 기준 우리 군의 해외파병 활동에 대해
‘찬성(매우 찬성 + 찬성하는 편)’ 응답은 75.4%로,
작년(74.1%) 대비 1.3%p 증가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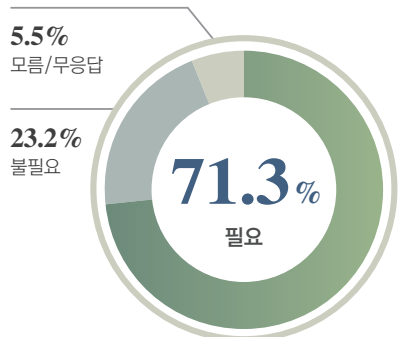
소말리아 해외파병
활동에 대한 동의



우리나라 성인의 76.3%는
‘소말리아 해외파병 활동’에 대해 찬성

2017년 기준 소말리아 해외파병 활동에 대해
‘찬성(매우 찬성 + 찬성하는 편)’ 응답은 76.3%로,
작년(74.9%) 대비 1.4%p 증가했음

아랍에미리트
해외파병
활동에 대한 동의



우리나라 성인의 71.3%는
‘아랍에미리트 해외파병 활동’에 대해 찬성

2017년 기준 UAE 해외파병 활동에 대해
‘찬성(매우 찬성 + 찬성하는 편)’ 응답은 71.3%로,
‘반대(절대 반대 + 반대하는 편)’ 응답(23.2%) 대비 48.1%p 높게 나타남

해외파병 장점에 대한 인식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무응답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다



파병된 해당국가의 재외동포 보호 및
우리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역할이 커진다.



파병된 해당국가와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 군의 선진화 및 실전 경험 축적에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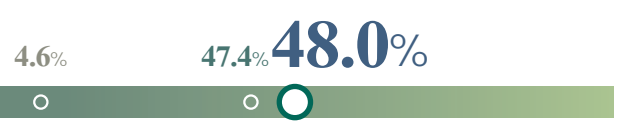
해외파병 단점에 대한 인식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무응답

파병된 지역의 위협증가로 파병부대 장병의 희생이 우려된다.



파병으로 인해 예산이 증가하여 국가경제에 부담을 준다.



파병에 대한 찬반논란으로 인해 국내정치 및 여론이 분열되
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군 병력과 장비가 빠져나감으로 인해 북한 위협에 대한 우리
나라의 대응전력이 약화된다.



조사대상 |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조사기간 | 2017년 7월 12일 ~ 2017년 7월 18일
응답률 | 14.04%
조사방법 | 유·무선 전화조사
표집오차 |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조사기관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하나가 되다



세계에 찍힌
점과 점이 이어져
하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새겨질
수많은 점을 이어
굳건한 평화를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뜻과 힘을 더하고,
세계 속 평화의 동참을 거듭하며,
‘하나’라는 변치 않을 가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해외파병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세계 평화 유지와 국익 증진에 기여합니다.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은 분쟁지역의 안정화와 재건을 돕기 위한 법적 기반입니다. 또한 우리 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군사 외교관으로서 국익증진에 기여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됩니다.

[법 제정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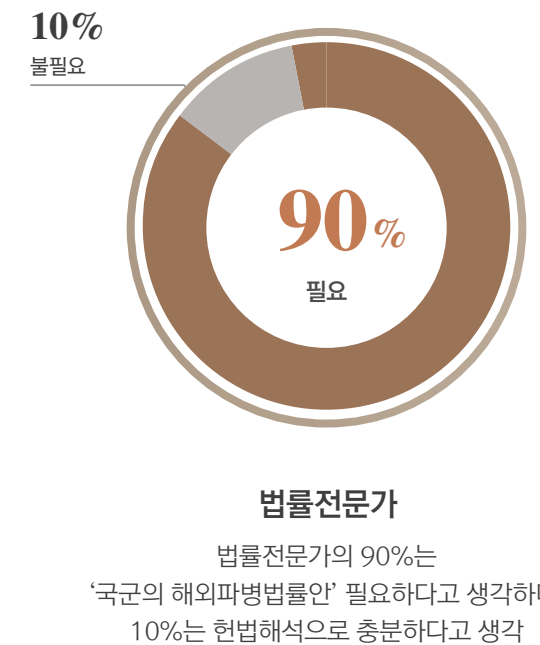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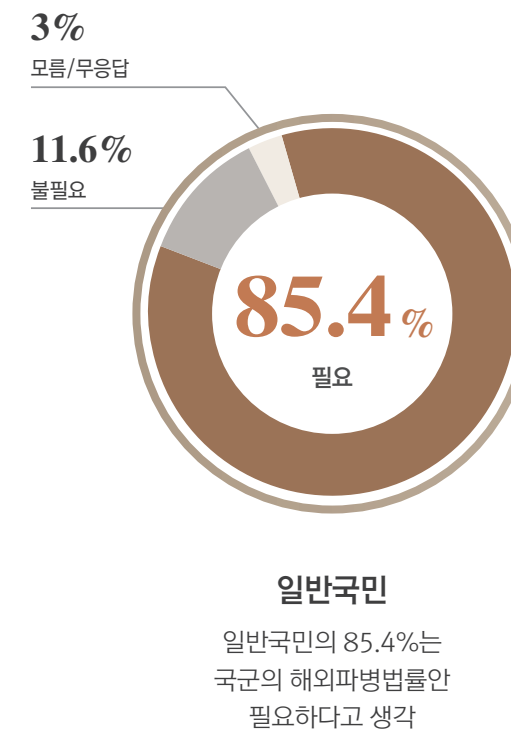
독일 「해외파병에 대한 의회 참여법」 제정(2005년) 사례

- 독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4조 제2항의 ‘국제평화유지를 위해 집단안보체제 가입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UN과 NATO의 결의에 따른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 해석(1994년 7월)
- 헌법재판소 해석을 구체화하는 「해외파병에 대한 의회 참여법」 제정(2005년 3월 18일)
- 파병부대가 의회의 법적 통제를 받는 “의회의 군대”로 거듭남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 세계 곳곳에 희망을 전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은 분쟁지역의 안정화와 재건을 돕기 위한 법적 기반입니다. 또한 우리 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군사 외교관으로서 국익증진에 기여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됩니다.

[해외파병법 제정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응답률 | 14.04%

조사방법 | 유·무선 전화조사

조사기간 | 2017년 7월 12일 ~ 2017년 7월 18일

표집오차 |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조사기관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국군의 해외파병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존 UN PKO법에는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및
국방교류협력 활동 미포함

2010년에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UN PKO법)’이 제정되었지만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및 국방교류협력은 제외하여 이에 대해서는 헌법 외에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UN PKO법은 아프리카 연합 등 지역기구와 협력하는 유형의 평화 활동 역시 포괄할 수 없습니다.
+ UN PKO법 단서조항 |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제분쟁 대응 및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우리 군의 역할 증대 요청

우리 군은 국가의 발전에 따라 복잡해진 국제분쟁에 대응하고, 국방교류협력을 통해 국익증진에 기여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웃국가인 일본과 중국도 해외파병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해외파병활동에 대한
근거법 마련을 위한 노력

2005년부터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2012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는 아크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심의 시, ‘군사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한 파견에 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 제·개정 등을 포함하여 검토’ 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안이 마련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법률안 마련 및
제정 추진

제20대 국회에서도 국군의 해외파병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을 새로이 마련, 제정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2016년 8월 25일 김영우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 국방위원회 계류 중)

법률안 제정 추진경과 |

- 17대 국회** 국군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에 관한 법률안(2005년 10월, 송영선 의원 등) 국회 임기만료 폐기
- 18대 국회** 국군부대의 해외파견 절차에 관한 법률안(2009년 9월, 김장수 의원 등) 등 3개 법안 철회 또는 국회 임기 만료 폐기(2012년 5월 29일)
- 19대 국회**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2013년 6월, 송영근 의원 등)
* 국회 국방위원회 의결(2014년 12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임기만료 폐기(2016년 5월 29일)

파견 유형, 절차, 헌법정신을 법률안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우리 군은
다음과 같이 파견됩니다.

국제평화유지·조성 및 국방교류협력 등에 기여하기 위해
① 다국적군, ② 국방교류협력, ③ 기타 파견활동의 유형으로 파견됩니다.
→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파견활동이란?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외 ‘다른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파병
- 재해·재난 등으로 정부가 붕괴된 상태에서 민간단체의 요청에 의한 구호 목적의 파병 등

2 ‘국제평화’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을 준수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등을 해외파병활동의 기본원칙으로 하여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 헌법정신을 존중, 위헌에 대한 우려를 없앴습니다.

3 해외파병을 위해 다음
절차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 파견국가 또는 지역 조사와 활동보고서 작성
 - 파견 여부 및 기간 연장에 대한 국회 동의
 - 정부예산안 제출 전 연장동의안 제출
- 정부와 국회가 검토, 체계적으로 해외파병을 준비하겠습니다.

4 국회 통제를 강화하여
파병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파병 절차 내에서의 국회 권한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파병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구체적 성과 등 활동내역의 국회 보고 의무화(연 1회)
• 파병 종료 후 3개월 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 정부에 대한 ‘파병부대 철수 요구권’ 국회 부여
→ 국회 권한을 강화, 무분별한 파병을 할 수 없습니다.

회의

To. 송영무 장관님

美 해군 중부사령부와 美 5함대 그리고 연합해군사의 수병과 해병대 장병을 대표해 깊은 호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특히 CMF를 지원하는 대한민국 청해부대(소말리아 호송전대) 파병에 감사드립니다.

청해부대는 CTF-151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EUNAVFOR의 CTF-465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활동을 억제하고 와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귀중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작전지역내 해적활동은 대한민국 함정을 포함한 CMF TF로 인해 효과적으로 제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가뭄과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고 소말리아 내 해적 네트워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적활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해적활동이 제압되어있음에도 역내 취약국가와 분쟁으로 인해 지속적인 해양안보 위협이 존재합니다. 군의 존재가 국제해양공동체를 안심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에 비추어 볼 때 2019년 12월까지 청해부대의 파병을 계속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J. C. Aquilino / 미 해군 중장 / 사령관
美 해군 중부사령부 / 美 5함대 / 연합해군사
2018년 4월 19일



To. 대한민국 한빛부대

남수단 공화국 대통령과 국민은 남수단 국민을 위한 한빛부대의 헌신과 주바-보르 간 도로 건설작업에 대한 공헌 등 한빛부대의 끊임없는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바임.

남수단 대통령 H.E. Salva Kiir Mayardit
2018년 3월 9일 수여

공로패

감사

To. 동명부대장님

동명부대와 프랑스 전력예비부대와의 훌륭한 협력에 비추어 전력예비부대 지휘관으로서 지난 주 전력예비부대 소대를 맞아주신 것에 대해 진심어린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의 소대는 이제 한국 동명부대가 공유해준 지식을 통해 동명부대의 작전지역과 절차에 대해 완벽히 숙지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부대 간 연습훈련은 상호운용성을 명확히 향상시켰으며, 특히 한·프랑스간 합동 훈련은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력예비부대 장병들은 동명부대의 전문성과 따뜻한 환대에 큰 기쁨을 표했습니다. 방문 기간 간 잘 협조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Bastian Dufilhol 대령
전력예비부대장 및 프랑스 다만부대 29진 부대장
2018년 8월 3일



To. 정부합동성과평가단

아크부대는 한-UAE간 신뢰와 협력의 상징이며, 국방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을 지향하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UAE 국방부 정책전략차관보
2018년 5월 2일

아크부대는 고도의 전문성과 성실함으로 특수전분야 뿐만 아니라 고공낙하, 대테러, 사격술 등의 분야에서도 훌륭한 전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합훈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UAE 특수전 부사령관
2018년 5월 2일

협력